





### 1) 위 치

가리울 마을은 위도 36-47-50, 경도 127-53-50인 지역에 위치하며, 가리울은 면소재지에서 정서쪽으로 3.5km 떨어진 지점의 마을이다. 또한 101번 도로와 306번 도로가 만나는 삼거리가 가리울이 위치한 곳이다.

번갯말 마을은 위도 36-48-10, 경도 126-53-10인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21번 국도에서 101번 도로로 나뉘어지는 곳으로 500m 정도 떨어진 곳이다. 가리울에서는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신창면 북서쪽의 끝지점이다.

### 2) 현 황

가리울 마을의 총 인구는 257명으로 남자 136명, 여자 121명이다. 총 76가구가 살고 있고, 농업에 71%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29%는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번갯말 마을의 총인구는 190명인데 남자 95명, 여자 95명으로 나뉜다. 총 63가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은 82.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17.5%는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 - 인구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남	여
가리울 마을	257명	136명	121명
번갯말 마을	190명	95명	95명

### - 생 업

구 분	계	농 업	기타서비스업
-----	---	-----	--------

마을명			
가리울 마을	100%	71%	29%
번갯말 마을	100%	82.5%	17.5%

가리울 마을의 농경지 현황을 살펴보면 논 72ha, 밭 23ha, 논이 밭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기계 현황은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콤바인에 이용되고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마을 회관 1개소가 있고 앰프 시설이 구비 되어 있다.

번갯말 마을의 농경지 현황을 살펴보면 논 67ha, 밭 11ha, 논이 많아 벼농사 위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콤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마을앰프가 구비된 마을회관 1개소가 있다.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가리울 마을	95ha	72ha	23ha
번갯말 마을	78ha	67ha	11ha

- 문화시설

구분 마을명	계	마을회관	기타문화시설
가리울 마을	1개소	1개소	-
번갯말 마을	1개소	1개소	-

가리울 마을의 성씨별 분포 현황을 살펴 보면 최씨 14%, 이씨 13%, 조씨 12%로 조사되었고 다른 성씨들이 골고루 분포 되어 있으며, 연령층을 보면 40~60대까지 골고루 분포 되어 있다.

번갯말 마을의 성씨별 분포 현황을 살펴 보면 장씨 1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김씨 14%, 이씨 11%로 조사 되었고 기타 성씨가 59%로 나타났으며, 연령층을 보면 40~60대까지가 가장 많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조씨	이씨	최씨	장씨	김씨	기타성씨
가리울 마을	76호	9호	10호	11호	-	-	46호
번갯말 마을	63호	-	7호	-	10호	9호	37호

- 최고령자

가리울 마을의 최고령자는 맹성호씨로 85세이며, 번갯말 마을의 최고령자는 홍정녀씨로 95세이다.

3) 자연경관

신창의 버스 종점인 가리울은 높지 않은 산이 병풍처럼 동네를 둘러 싸고 있고, 정류장 가운데에 대략 400~500년정도로 보이는 느티나무가 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우물이 하나 보인다.

번갯말 마을은 입구에 들어서기전 큰 플라스틱 나무가 있었다. 마을 오른쪽으로는 도로가

지나가고, 왼쪽으로는 논이 펼쳐져 있으며 신창면의 끝마을이다. 마을 바로 옆 도로 건너서는 산이 있다.

#### 4) 마을변천과정

가리울마을과 번갯말 마을은 본래 신창군 소동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조원동, 언내리의 이름을 따서 가내리라 하여 아산군 학성면에 속했다가 1921년 신창면에 편입되었다.

#### 5) 입 향

가리울 마을은 신창 맹씨의 본 고장으로 이씨가 먼저 터를 잡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신창 맹씨가 더 번성하여 가리울은 신창 맹씨가 더 유명하며, 맹씨가 18대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아 적어도 서기 1450년경 약 540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번갯말 마을의 처음 터를 잡은 사람은 김해 김씨로서 지금 13대까지 살고 있으며, 그것으로 볼 때 서기 1400년경 약 390년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6·25 이후 호구수가 줄었는데, 당시 유씨와 김씨가 많았다 한다.

#### 6) 지 명

##### 十 가리울 마을의 지명

- 가리울 : 가내리에서 가장 큰 마을. 지형이 가리 즉 큰 더미와 같이 살기좋은 마을이란 뜻임. 신창 맹씨의 본거지라 함.
- 꽃단봉 : 꽃단봉 밑에 있는 마을로 산에 진달래 꽃이 많이 피어 있어 꽃처럼 아름다운 봉우리란 뜻을 가진곳.
- 조원동 : 가리울 북서쪽에 있는 마을로서, 약 100년전에 가리울에 살던 이씨가 이곳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하였다고 함. 뚝을 만들로 새로 이룩한 마을이라 하여 조원동(造堰洞)이라 했는데 변화하여 조원동이 됨.
- 안산 : 조원동 앞에 있는 산. 옛날부터 앞에 있는 산을 안산이라 함.
- 동채 : 원안말 앞에 있는 들로 동쪽에 있는 들이란 뜻임.
- 방아다리 : 조원 방죽 아래에 있는 들. 개울에 방아 다리를 놓았다고 하여 생긴 이름.
- 사근다리 : 방아다리 아래쪽에 있는 들. 낡은 다리가 있었다는 뜻으로 지은 이름.

##### 十 번갯말 마을의 지명

- 번갯말 : 가리울 북동쪽에 있는 마을로 앞에 용샘이 있는데 용이 번개를 치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고 원래는 갯고랑이라는 뜻으로 "본래는 개였다"는 말이 줄어서 번개말이 되었다고 함.
- 삼정잇-들 : 번개말 앞에 있는 들. 곡식을 넣거나 갈무리 한다는 뜻으로 들이 기름지다는 데서 유래된 이름.
- 서번 : 삼정잇들 건너쪽에 있는 들인데 서쪽 번개의 준말.
- 원안말 : 조원동 북쪽에 있는 마을. 독을 막고 들을 개척한 안쪽이 되는 마을이란 뜻으로 언내리가 원안말이 되었음.

#### 7) 전 설

##### 十 느티나무에 대한 전설 (가리울 마을)

옛날 신창 맹씨 5대조 할아버지께서 마을에 있는 큰 느티나무를 배 만드는 사람에게 팔았는데 마을에 우환이 계속되어 느티나무를 팔았기 때문이라 믿고 다시 느티나무를 동네기금으로 샀다고 한다.

##### 十 가리울 마을 유래

옛날에는 우리 동네가 지금보다도 더 완전히 산으로 덮여서 산에 오르지 않고는 우리 동네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야말로 물도 없는 완전 산촌이었으며, 온 동네가 산으로 인해 전부 가려졌다고 하여 '가리울'이라 불렀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개롤'이라고 부른다.

#### 十 우물에 대한 전설

옛날에는 공동우물로 빨래도 하고 보리쌀도 씻고 목욕도 하였다고 한다. 이 우물은 맹씨들이 산다 하여 사직산이라 하는 산이 있는데, 우물 뒤에 높지 않게 있으나 그곳이 명당자리라고 하여, 타동네 사람들이 밤에 몰래 시신을 묻고 가면 다음날 우물이 말라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그곳에 가서 시신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면 물이 다시 나오고 하는 일이 여러번 있었다고 한다.

####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가리울 마을은 매년 대동계를 12월 말에 마을에서 하면서 마을의 애경사 등을 같이 의논하며 음식을 먹으며 정을 나누고 있으며, 매년 마을 부녀회에서 음력 7월 7석에 노인들을 위한 노인위안 잔치를 열어주고 있고 상조회가 있어 마을에 상을 당했을 때 서로 도와주고 있다 한다.

번갯말 마을은 마을 입구에 큰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는데 예전엔 선황당이라 불렀다. 이곳에서는 선황제를 올리고 마을 잔치가 행해졌으나 지금은 지내지 않고 있다. 몇해전만 해도 지금의 그 플라타너스 나무에 마을을 기원하여 무당을 불러 굿을 했었다 한다. 또 해마다 음력 칠월 칠석때가 되면 풍물놀이를 하여 잔치를 벌이는데, 이 마을에서는 국수를 해 먹는다고 한다.

#### 9) 특별하게 소개할 만한 인물

#### 10) 종교현황

가리울 마을은 기독교로서 가내 감리교회가 있는데 신도수가 123명으로 조사 되었고 번갯말 마을에는 종교 단체가 없다.

#### 11) 공장현황

가리울 마을에는 한국 휘시마크라는 플라스틱 성형용기 회사가 있다.

力 한국휘시마크 : 가내 산 36, 허가일 92. 9. 23. 면적 15,306 종업원수 36명, 플라스틱 성형용기

#### 12) 마을의 특성

가리울 마을은 대부분이 벼농사를 짓고 있으며, 이 마을은 신창 맹씨가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며, 교통이 불편하기는 하나 마을은 시골 농촌의 정이 배어 있다.

번갯말 마을은 대부분이 논농사를 많이 하고 있으며, 교통이 불편하기는 하나 서로 상부상조하며, 농촌사회로서의 모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으며, 이 마을에서 가장 많은 성씨는 장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